

선대·항만 인프라 키우고 친환경·자율운항으로 경쟁력 강화

HMM



◆미국-이란 전쟁 속 실적 상승 기초 이어가

HMM은 올해 2분기 매출 2조9928억원, 영업이익 280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1%, 20.5%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증가한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올 초 예상과 달리 실적 개선을 기록할 수 있는 비결로 해상운임 상승이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3개월 전인 지난 4월 1800대에서 7월 초 3300대까지 상승하며 300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물동량 병목 현상과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둔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운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해운업계는 올해 2분기 초까지만 해도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월 이후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동 노선 차질과 공급 부족 현상이 운임 상승으로 이어졌고,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운임이 뛰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올해 3분기에도 이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3분기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물동량이 확대되며 해운업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컨테이너선·벌크선 선대 확장

HMM은 컨테이너 부문의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허브 앤 스포크는 대형선이 원양항로 거점을 맡고, 중소형 피더선이 지선망을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출발지와 목적지가 연결되어 있어 화주들에게 유연한 운송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같은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HMM은 지난해부터 총 35척을 확보해 피더선 선대를 52척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7월 7일 스페인과 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MA2'의 첫 항차를 시작했다.

피더선 5척이 투입되며 왕복 운항 기간은 35일이다. 혼잡도가 높은 서아프리카 항만 구간을 별도로 운영해 초대형선의 운항 정시성을 높이고, 지선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HMM은 내다봤다. HMM은 향후 글로벌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선대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항만 인프라 확대도 병행 중이다. 자체 운영 중인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TTIA)은 확장 승인을 받아 공사과 장비 발주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브라질 산토스 항만 신규 터미널 입찰과 미국 서부 터미널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또 HMM은 벌크선 선대 확장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벌크선 비중은 지난해 말 51척에서 올해 3월 59척, 지난달 61척으로 38.6%까지 확대됐다. 주 사업인 컨테이너선 운용 차별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와 함께 벌크선에 대한 집중과 증가 속도가 빨라 수년 내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

HMM이 친환경 선박 확대와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시스템 도입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최원혁 사장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컨테이너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벌써부터 결실을 맺으며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HMM은 2030년까지 2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전략을 세운 가운데 올해는 효율과 친환경 전환, 질적 성장을 통한 수익 구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분기 매출 2.9조, 영업이익 2809억 해상운임 3000선 회복에 실적개선

컨테이너 '허브 앤드 스포크' 전략 피더선 선대 52척·'MA2' 첫 항차 초대형선 정시성·지선망 탄력 운영 스페인 터미널 확장 공사 준비 중 2030년까지 벌크선 110척 확대

메탄올 연료 'HMM 그린호' 인수 IMO 보다 앞선 2045 넷제로 제시 33척 선박에 자율운항 솔루션 설치



① 지난 3월 24일 HMM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HMM 50주년 기념식'에서 최원혁 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② HMM이 유럽-아프리카 지역 허브 항만으로 활용하는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만의 자영터미널(TTIA). ③ HMM의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그린호'(HMM Green). ④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오팔호 브릿지에서 선원이 AI 자율운항 시스템의 모니터를 보며 항로를 확인하고 있다.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MM은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벌크선을 110척으로 늘리고 매출 비중도 22%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벌크선의 경우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 투자 확대…디지털 전환 효율성 극대화

HMM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MM은 2025년 3월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하며 메탄올 추진선 도입을 본격화했고, 해당 선박은 회사 측 설명 기준으로 바이오메탄올 사용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65% 이상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후 2025년 10월에는 1만3000TEU급 LNG 연료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며 친환경 선대 확충을 추가로 결정했다. LNG 연료는 기존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이상, 질소산화물은 80% 이상, 황산화물은 99% 이상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4월 친환경 선박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HMM 라임호 명명식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2050 넷제로보다 5년 앞선 2045 넷제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친환경 투자를 확대해 지속 성장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친환경 선박은 벌크선도 예외가 아니다. HMM은 지난달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벌크선 8척, 가스선 2척 등 친환경 선박 10척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0척 모두 이중연료 또는 다중연료 구조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HMM은 2026년 1월 HD한국조선해양, 아비커스와 '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도입 계약 및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44척 선박에 자율운항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운항 솔루션을 통해 최적 항로로 운항하면 연간 연료비를 평균 4% 절감할 수 있다. HMM이 보유한 전 선박에 이를 적용할 경우 한 해에 400억원 넘는 비용을 절감 효과를 기록할 수 있다.

현재 33척에 AI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는 올해 연말까지 목표한 44척 중 75%의 진행률이다. HMM은 2030년까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123척 전부에 하이나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형 선사 중 100척 이상 전 선단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HMM이 세계 최초다.

HMM 관계자는 "연료비는 선사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섬세한 운항 속도 유지를 통해 4%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기술"이라며 "2030년까지 전 선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M이 친환경 선대 확장과 항로 운영 방식, 자율운항 기반 디지털 전환의 추진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